

2018. 11. 01. 11:00

홍보담당 김채하
Public Relations Kim, Chae Ha
T. 02-2124-8928
E.mail. chaeha@seoul.go.kr
webhard. http://sema.webhard.co.kr
ID:semapress PW:sema

2018 서울사진축제 《멋진 신세계》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사회로 되돌아가려는 수단과 방법을 꿈꾸기 위하여”



전시명	2018 서울사진축제 《멋진 신세계》
전시기간	2018. 11. 1(목) - 2019. 2. 10(일)
개막식	2018. 11. 1(목) 오후 5시
전시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SeMA 창고, 플랫폼창동61, 아트나인
전시부분	사진, 영상, 설치 등
전시작가	(북서울미술관) 김명수, 노순택, 백승우, 박선민, 박진영, 윤향로, 한성필, 김경태(EH), 코바야시 켄타, 고 이타미, 하타케야마 나오야, 가와우치 링코, 코야마 다이스케, 미즈타니 요시노리, 요시다 카즈오, 장커춘, 키타라 카하나, 알레한드로 카르타헤나, 세실 에반스 (SeMA 창고) 김주원, 오연진, 이민지, 더 카피 트래블러스(카노 슌스케, 사코 테페이, 우에다 야야) (플랫폼창동61) 압축과 팽창(안초롱, 김주원), 이성민x권영찬

- 2010년 제 1회 서울사진축제를 시작으로(주관: 서울시)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서울의 대표 사진 축제
- 2021년 준공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가칭) 건립 추진에 따라 운영기관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관하여 2018년부터 사진축제를 직접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도모하고 향후 미술관 인프라 구축
- 일반 시민, 전문가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성,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 구성.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본 전시, SeMA 창고를 활용한 특별전, 창동 문화 특구(플랫폼창동61)을 활용한 장소 특정적 현장 설치 작업, 예술영화 전문 상영관 아트나인과 함께하는 예술영화 상영 등을 통하여 축제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즐길 거리를 높임
- 본 전시는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로부터 영감을 받아 과학과 기술문명에 따른 인간조건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있으며, 특별전은 동시대 시간성에 대한 교차와 번역 가능성에 대한 작품을 선보임
- 전시와 연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시 참여 및 전시 관람 효과 증대
 - 국내외의 대표 기관 및 연구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견을 나누는 ‘해외초청세미나’
 - 작가 작품에 대한 세부 경향을 살펴보는 ‘작가와의 대화’

전시 내용

서울시립미술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0일까지 2018 서울사진축제 《멋진 신세계》를 개최한다. 본 전시는 올더스 헉슬리의 고전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등장하는 과학과 진보가 만들어 낸 초극단의 체제 안에서 마주하는 미래사회의 위험들을 동시대적 현상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권력과 감시, 정보 사회 및 디지털의 확산 등은 변화하는 정치체제와 사회적, 환경적 영향들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인간의 가치체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사진축제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본 전시와 SeMA 창고의 특별전, 플랫폼창동61의 현장형 프로젝트, 예술영화 상영관 아트나인과 북서울미술관의 상영회로 구성된다. 장소 특정적 현장 설치 프로젝트에는 앞으로 건립될 서울사진미술관의 탄생을 예고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임으로써 다가올 서울사진미술관의 건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본 전시에 참여한 6개국 19명의 작가들은 국내외 미술관과 사진 페스티벌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주요 작가이다. 경제 개발의 문제부터, 체제와 이념의 양극화, 미디어 독재와 사실 구분의 모호성, 인간이 일으키는 수많은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설 『멋진 신세계』가 제기한 기술이 개발된 초 극단의 사회체제가 갖는 문제들을 살펴본다.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은 동시대의 디지털과 가상의 영역에서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향후 도래할 우리 미래의 존재 조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전은 시간과 같은 물리적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세계와 이러한 법칙을 따르지 않는 세계를 겹쳐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낯선 세계를 파악하고 상호 번역해낼 수 있는지 질문한다. 특별전에 참여한 2개국 4팀은 사진이 가진 다중적인 위상을 가늠하고(오연진), 사진 데이터와 기억의 위상을 재배치한다(김주원). 참여 작가들은 데이터로 구축된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사이를 오가며(이민지), 이미지를 인화와 복제를 통해 수평적으로 공유하고 수직으로 쌓아 나간다(더 카피 트래블러스).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추진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창동역 주변 플랫폼창동 61을 중심으로 참여 작가들은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현재와 겹쳐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압축과 팽창은 플랫폼창동 61의 컨테이너 구조를 활용하여, 전철이나 도로 바깥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형 빌보드 설치물을 전시한다. 이 작업은 AI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드러낸 전작과는 달리 인간의 눈과 손을 거쳐 만들어질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이성민×권영찬은 창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미래의 미술관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개발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많은 <표본들>의 사진을 활용한 이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가 지나온 궤적을 조망한다.

북서울미술관과 예술영화 상영 전문관 아트나인에서는 <멋진 신세계>라는 전시 주제와 관련된 대중 친화적 영화와 사진예술과 관련된 영화들을 상영한다. 서울 전역 네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심도 있고 다채로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전시**복서울미술관****주요 작가 및****작품 설명**

하타케야마 나오야(b.1958)

하타케야마 나오야는 1958년에 이와테 현에서 태어났다. 오오츠지 키요지로부터 사사받았고, 1984년 츠쿠바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 후 하타케야마는 도쿄에서 활동해 왔으며 그 도시를 모델로 자연, 도시, 그리고 사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의 작품 <폭발> 연작에서 산업화의 원료를 얻기 위해 채굴되는 석회암 산의 모습을 폭발 전문가의 도움을 빌어 석회암 채굴을 위한 폭발 장면을 사진에 담아내었다. 폭발된 화면은 마치 테러와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노순택(b.1971)

노순택은 동시대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다큐멘터리 사진의 형식으로 기록하는 작가이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대학원에서 사진학을 공부 했으며, 한국의 분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폭력의 의미를 추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그는 현장의 중심에서 지나간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 일상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기록한다.

알레한드로 카르타헤나(b.1977)

알레한드로 카르타헤나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살면서 일한다. 알레한드로는 캘리포니아주 산타 바바라의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인터넷(www)과 실제 지역을 방문하여 이 장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 작은 관광 도시는 완벽한 미국적 지중해 휴양지처럼 보이지만 그 외관 뒤에 불안감이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실 에반스(b.1983)

세실 에반스는 런던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국계 벨기에 예술가이다. 그녀의 작업은 현대 사회에서 감정의 가치와 인류와 그것이 개발 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의 증가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작품 <하이퍼 링크가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2014)은 2014년 사망 한 배우 필립 시모어 호프만(Philip Seymour Hoffman)의 CGI(computer-generated imagery, 컴퓨터 생성 화상)의 렌더링 실패에서부터 설명된다. 소위 하이퍼링크 시네마가 강화되면서 디지털 에이전트 그룹의 삶은 유령, 스팸 봇, 홀로그램 등 다양한 설정, 장르 및 표현 방식에 걸쳐 펼쳐진다. 여러 줄거리는 해부학적 구조 없이 존재의 주요 개념, 즉 우리가 기계 안에서 살고 일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구축, 수렴 및 붕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별전

walking, jumping, speaking, writing.

境界を、ソウルを、世界を、次元を.

SeMA 창고

경계를, 시간을, 세계를, 차원을.

신체는, 링크는, 언어는, 형태는.

시간과 같은 물리적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세계와 이러한 법칙을 따르지 않는 세계를 겹쳐 보는 데서 출발한다. 어떻게 그 낯선 세계를 파악하고 상호 번역해낼 수 있는지 질문하고 탐구한다. (기획: 김익현)

● **부대행사**

	일시	프로그램명	장소	참여방법
1	11월 17일(토) 오후 2시	오연진 <보지 않는 사진들>	SeMA 창고	인원 40명 (사전 및 현장 접수)
2	11월 17일(토) 오후 3시 30분	더 카피 트래블러스 <카피서사 이즈>	SeMA 창고	인원 25명 (사전 및 현장 접수) *일본어-한국어 순차통역
3	11월 18일(일) 오후 1시	현시원 <전시를 사진으로 본다는 것에 관하여>	SeMA 창고	인원 40명 (사전 및 현장 접수)
4	11월 18일(일) 오후 2시 30분	<낯선 시간과 공간을 번역하기: 이 전시를 중심으로>	SeMA 창고	인원 40명 (사전 및 현장 접수)

* **오연진 「보지 않는 사진들」**

사진은 흔히 '눈'의 대체물이자 재현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합성틀과 3d 프로그램의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사진이 피사체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다. 본 토크에서는 사진의 재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몇 가지 레퍼런스들을 훑어본 후, '그것이-존재-했거나-말거나'인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더 카피 트래블러스 「카피서사이즈」**

더 카피 트래블러스는 쉰스케 카노, 텃페이 사코, 우에다 야야가 결성한 예술가 그룹이다. 그들은 복사기, 스캐너,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화되고 복제되는 것들을 다시 캡처하기를 시도한다. 더 카피 트래블러스의 작품 제작 과정에서 핵심적인 복사기를 사용하는 ZINE 제작 워크숍을 관객들과 함께 진행한다.

*** **현시원 「전시를 사진으로 본다는 것에 관하여」**

사진이 전시장에 놓이는 방식과 전시가 끝난 후 사진으로 전시를 아카이빙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한편 관람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뒤통수가 찍힌 전시장 전경 사진과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찍은 전시장 사진은 어떻게 다르고 같을까? 사진을 통해 이뤄지는 공적 기록과 사적 기록이 어떻게 전시장에 펼쳐지는지 살펴본다.

**** 「낯선 시간과 공간을 번역하기: 이 전시를 중심으로」 기획자, 참여작가, 책 편집자, 통역자가 각각의 관점으로 번역한 이 전시에 관해 이야기 한다.

현장형 프로젝트**플랫폼창동61**

플랫폼창동61이 위치한 장소는 미술관,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특성을 가진 창동역과 플랫폼창동61을 중심으로 참여 작가들은 각각의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과거-현재와 겹쳐서 제시한다.
(기획: 김익현)

압축과 팽창 (안초롱/김주원)**<ULTRA VIOLET, DUST, MEMORIES AD.>**

압축과 팽창은 5번째 프로젝트인 <ULTRA VIOLET, DUST, MEMORIES> AD. 를 전시한다. 지난 《유령 팔》 전시에서 선보인 <찰리 오스카/에코 엑스레이>가 구글 AI의 이미지 처리방식을 공간에 물리적으로 구현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인간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보는 방식)을 설정해 데이터를 생산하고 책이라는 형태로 구현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압축과 팽창은 사진 이미지 데이터를 출판사에 납품하고, 편집자와 디자이너는 데이터를 다시 가공해 다른 차원의 물리적 공간인 종이책을 만든다. 더 나아가 이들은 발간되지 않은 책/작업을 광고라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 제시한다. 아직 다가오지 않을 - 인간의 눈과 손을 거쳐 만들어질 -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작업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임시적 시공간을 만들어 낸다.

DATA HANDLER: CO

SERIAL NUMBER: UVDM_CO_0200

TRIMMING DATA SIZE(CM): 8.9cm x 8.9cm

RESOLUTION(PIXEL): 1052 x 1052

RESOLUTION(PPI): 300INFORMATION VALUE (KEYWORD): Firework

DATA HANDLER: EX

SERIAL NUMBER: UVDM_EX_0106

TRIMMING DATA SIZE(CM): 20.0cm x 20.0cm

RESOLUTION(PIXEL): 2367 x 2367

RESOLUTION(PPI): 300 INFORMATION VALUE (KEYWORD): Recoil

이성민×권영찬**<표본들>**

1950년대부터 도래할 근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그렸던 사람들은 도시와 건축을 오브제로 만들고 건설하며 새로운 미래의 간격을 좁히는 실험을 해왔다. 그것을 기록한 사진들은 속도, 전진, 총력 등의 구호 아래 점차 무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의 모습을 투영한다. 사진미술관이 건립될 부지에 선보이는 <표본들>은 이러한 시각이미지들을 탈 초점화하며 지금 그 전진의 끝에서 역설적으로 기존의 청사진이 반(反) 미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조명해본다.

상영회

아트나인
× 북서울미술관

●영화 상영시간표

일정	상영작	시간	감독	장소
2018. 11. 2(금) 19:00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123분	기예르모 델 토로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11. 6(화) 20:00	파리시청 앞에서의 키스: 로베르 두아노 * 관객과의 대화 문정원(상상마당 선임큐레이터) ×천수림(서울사진축제 프로그램디렉터)	81분	클레망틴 드루디유	아트나인
11. 13(화) 20:00	메이플쏘프 * 관객과의 대화 정훈(계명대 사진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비평)×정재임(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큐레이터)	109분	펜튼 베일리, 랜디 바바토	아트나인
11. 16(금) 19:00	패터슨	118분	짐 자무쉬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11. 20(화) 20:00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 관객과의 대화 박현두(사진작가), 제이안(사진작가)× 천수림(서울사진축제 프로그램디렉터)	84분	존 말루프, 찰리 시스켈	아트나인
11. 27(화) 20:00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 관객과의 대화 신지혜 아나운서(CBS신지혜의 영화음악진행자)×임안나(사진작가)	93분	아네스 바르다, JR	아트나인
11. 28(수) 19:00	플로리다 프로젝트	111분	션 베이커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12. 7(금) 19:00	더 랍스터	118분	요르고스 란티모스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2019. 1. 4(금) 19:00	원더 힐	101분	우디 앨런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1. 30(수) 19:00	미세스 하이드	95분	세르쥬 보종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2. 1(금) 19:00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116분	일디코 엔예디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모든 프로그램은 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 02-2124-5277

기본 정보

주최 : 서울시립미술관
 후원 :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 아트나인
 협력 : 서울주택도시공사, 플랫폼창동61
 담당 : 정재임 (학예과)

SeMA, 북서울미술관 · 전시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 프로젝트 갤러리 1, 2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 연락처 : Tel. (02) 2124-5269, Fax (02) 2124-5280
 · 관람시간 : 화~금 10:00-20:00 (월요일, 1월 1일 휴관)
 토, 일, 공휴일 10:00-18:00
 뮤지엄 나이트(매월 1, 3주 금요일) 10:00-22:00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2:00
 · 관람료 : 무료

플랫폼창동61 · 전시기간: 2018. 11. 1 - 11. 30
 · 주소 :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4
 · 연락처 : (02)993-0561
 · 관람시간 : 화~금 10:00-20:00 (월요일 휴관)
 · 관람료 : 무료

SeMA 창고 · 전시기간: 2018. 11. 1 - 11. 30
 · 주소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 연락처 : (02)2124-8813
 · 관람시간 : 화~금 10:00-19:00 (월요일 휴관)
 · 관람료 : 무료

아트나인 · 전시기간: 상영시간표 참조
 · 주소 :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89
 · 연락처 : (02)1544-0070
 · 영화표 예매 또는 현장 결제 후 관람 : 9,000원

문의

홍보담당 큐레이터 김채하(02-2124-8928)

작품이미지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접속 (<http://sema.webhard.co.kr>)

다운로드 방법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

대표 이미지

한성필, 센 강 대지의 구름
025, 2005, 크로모제닉 컬러
프린트, 122×163cm,
작가소장



노순택, 현기증 I #CFJ1301,
2015, 디지털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62×112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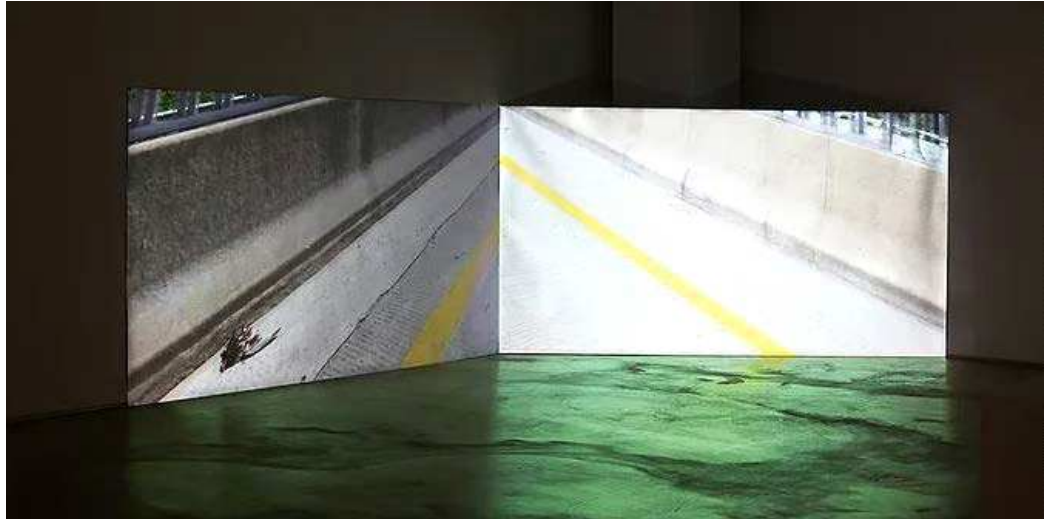
가와우치 링코, 무제
(천지天地 시리즈),
2012, 람다 프린트, 각
148×185cm, 작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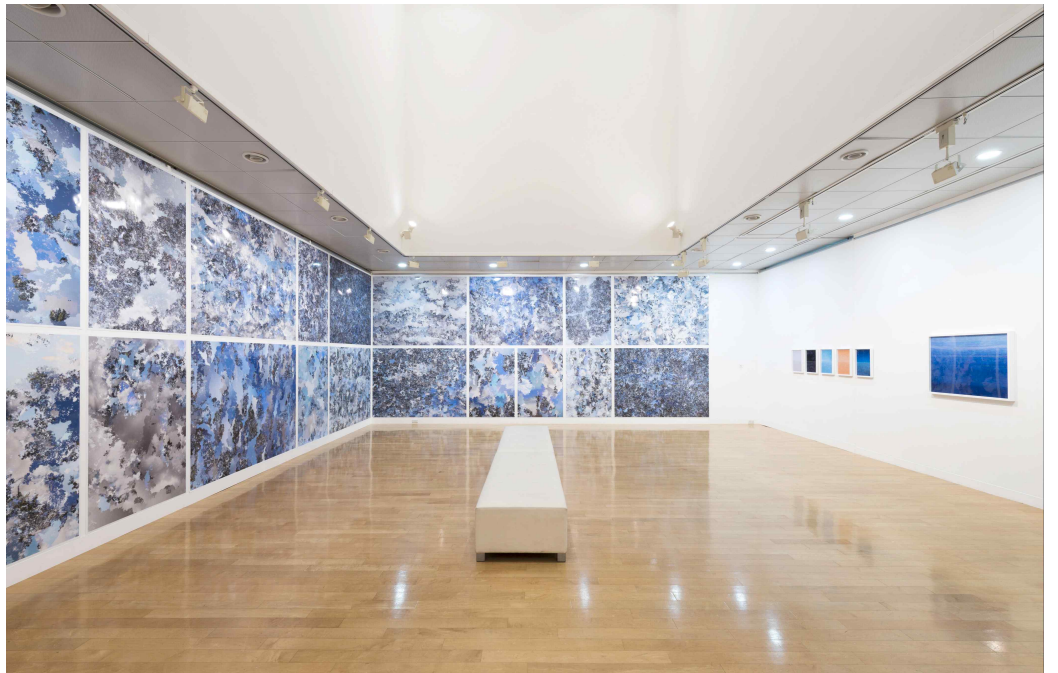
키트라 카하나, 노마딕
아메리카, 2009-,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각 20×30인치, 작가소장



박선민, 고속도로 기하학 2,
2015,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좌) 10분48초,
(우)11분6초, 반복 상영,
작가소장



요시다 카즈오, 파란색 하늘,
2012-2018,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가변설치, 작가,
G/P갤러리 소장



코야마 다이스케,
무지개 변주 2018 #01, #02,
#03, #04, #05, 2009-2018,
디지털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각 111.8×680cm, 작가소장
2017 아이미아 | AGO사진상
설치전경, 온타리오
아트갤러리, 토론토, 2017

